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종암동성당 | 2002년 3월 설립



시흥5동성당 **종암동성당** 성내동성당



종암동성당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82

종암동성당은 2002년 3월 월곡동성당으로부터 약 1,700명의 신자가 분리되어 설립되었습니다. 2002년 4월 초대 주임신부가 부임했고, 그 해 7월 첫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임시로 제대를 꾸며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그 후 지속적인 환경 개선 작업을 시작하여 12월 새롭게 단장한 성전에서 성탄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2003년 4월 본당 첫 세례성사가 있었으며, 39명의 신자가 새 가족으로 탄생했습니다. 본당 주보는 맘의 순교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입니다.

김명중 시문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요한 14,27)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한국 천주교회의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의 승천 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내리시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북녘 동포들에게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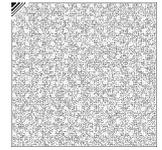
한국 교회의 성모님께 대한 공경과 사랑은 초기 교회부터 각별했습니다. 제2대 조선대목구장 앙베르 주교는 1838년 12월 교황청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를 조선교회 수호성인으로 청하였고,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은 1841년 8월 22일 이를 승인하셨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모진 박해와 갖은 어려움에도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며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1945년 성모 승천 대축일인 8월 15일,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이 성모님의 보살핌

의 결과라 믿으며 한국 교회의 성모 신심은 더욱 깊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을 우리 인류와 연결해 준 위대한 공로자입니다. 성모님을 통해 우리도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모후’인 성모님께서서는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의 간청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느님께 필요한 은총을 주시도록 청해주십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광복 74주년이 되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신 순국선열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되새깁시다. 우리 민족의 독립뿐만 아니라 동양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투신하신 애국지사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 요한 23세 교황은 1963년 발표한 회칙 ‘지상의 평화’를 통해 평화에 대해 인류 전체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상의 평화’는 모든 시대의 인류



가 깊이 갈망하는 것으로서 하느님께서 설정하신 질서를 충분히 존중할 때에 비로소 회복되고 견고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라고는 할 수 없고 진정한 평화는 하느님이 원하는 질서보다 완전한 정의를 인간 사이에 꽃피게 하는 질서라는 것입니다(성 요한 23세 교황 회칙, 『지상의 평화』 참조).

오늘날의 세계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불화와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은 군사적 위협이나 경제적 보복이 아닌 꾸준한 대화를 통한 평화를 추구할 때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상호 존중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목과 갈등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각자의 생각과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현대의 주변 나라들은 정치와 경제, 문화, 안보 등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고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비난하고 편을 갈라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모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지상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내외 현안들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정치는 평화에 봉사합니다”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올해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교

황님께서서는 “정치인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 봉사하면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롭고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조건을 창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끊임 없이 노력하고 또 성모님의 전구와 하느님의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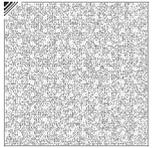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는 모든 이가 하느님 안에 한 가족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도 성모 마리아처럼 자신보다는 이웃과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는다면, 이 세상에 더 많은 주님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아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전능하신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평화의 모후이시며 위로자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2019년 8월 1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수정 수경



입당송 | 묵시 12,1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네.

제1독서 | 묵시 11,19ㄱ; 12,1-6ㄱ,10ㄱ,12

화답송 | 시편 45(44),10,11,12,16(© 10ㄷㄹ)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당신 사랑을 받는 여인들 가운데, 제왕의 딸들이 있고,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 ◎

제2독서 | 1코린 15,20-27ㄱ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복음 | 루카 1,39-56

영성체송 | 루카 1,49,48 참조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감사송 (영광스러운 마리아의 승천)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하늘에 오르신 분, 하느님을 낳으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완성될 주님 교회의 시작이며 모상으로서,
이 세상 나그뉘길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안을 보증해 주셨나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섭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